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09.63	↓ 코스닥	832.81
	(-60.80)		(-19.61)
↑ 금리 (미국 9년)	3.469	↑ 환율 (원·달러)	1394.50
	(+0.029)		(+10.50)

metro® 경제

지정학적 위기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
금, 또 최고가 경신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총선 끝, 식품값 줄인상... 중동약재 '물가폭탄' 부채질

치킨·버거 등 일제히 가격 상승
코코아·설탕 등 원재료값 올라
식품업계 전반 확대 가능성 ↑

중동 불안정에 국제유가 급등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주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치솟는 비용 증가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들은 가격 인상 카드를 빼들었으며 식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코코아,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중동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환경으로 유가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3·9·12면〉

당장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41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2원 오른 1399.2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1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

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제품·서비스의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급내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0% 가량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이 기존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올랐다.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회사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기 메뉴인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와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의 가격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노브랜드 버거가 판매 가격을 평균 3.1% 인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들이 감내해 왔다"며 "당장은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시기의 차이일 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카카오 가루, 코코아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거래가는 1년 만에 3배로 뛰었고, 올해 1분기 설탕 가격지수도 지난해보다 20% 상승했다.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제과업계 1위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600선 위협받는 코스피

코스피가 전 거래일(2670.43)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2.42)보다 19.61포인트(2.30%) 내린 832.81,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4.0원)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롯데웰푸드도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측은 "코코아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회사가 현재까지 원가 압박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용유와 설탕, 된장 등 필수 가공식품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5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였고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였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에 가깝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로 국제원유 가

격이 오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특히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다.

이 때문에 향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 섰던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속되는 원재료 가격 인상 부담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면초가' 韓 증시 코스피 2.28% 급락 시총 상위주 '털썩'

SK하이닉스·삼성 등 큰폭 떨어져

국내증시가 중동발(發) 리스크,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670.43)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10선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 2월7일(2609.58)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코스피가 급락한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3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 따른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 중국 소비지표 부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0원 오른 139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34억원, 2720억원을 순매도했다. 음식료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의료정밀(-4.27%), 기계(-3.22%), 운수장고(-3.20%) 등의 하락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현대차(0.21%), 기아(0.09%)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다. SK하이닉스(-4.84%), 셀트리온(-3.70%), 삼성전자(-2.68%) 등이 큰폭으로 떨어졌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尹 "서민 삶에 대한 배려 부족... 3대·의료개혁 매진"

국무회의서 총선 후 첫 입장 표명
'반성' 강조... 국정과제 추진 의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6일 4·10 총선 이후 6일 만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반성만 있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독선적 선언", "국민이 몰라빠서 죄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



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실시한 ▲건전재정 기조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

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내년까지 50만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실시
▲ '금배지 1호' 정청래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당선인에 양보" /사진 뉴시스

▲ 재외동포 비례정당 득표율...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순
▲ 한총리, 세월호 10주기에 "국민 안전·생명이 국정 최우선"



▲ 윤재옥 "野 선거 승리했다고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안대" /사진 뉴시스
▲ 김종민 "새미래 왜 지지 못받았는지 냉철한 평가 후 거취 결정"

강달러·유가상승 불안감 고조... 국내경기 불확실성 커지나

중동전쟁 發 금융시장 영향

코스피 2.28% 하락 2609.63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넘어서
당국 “안정화 조치 적기에 시행”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중동전쟁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주식시장 침체, 강달러(원화약세) 장기화, 유가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며 16일 금융시장은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6억원과 294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55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9.61포인트(2.30%)하락한 832.81에 거래를 마쳤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2억원,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인이 무장병력수송장갑차(APC)에 국기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1586억원을 내다 팔았고, 개인은 1855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온스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

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5차 중동전쟁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다. 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자

산인 달러와 금 등을 사들인다.

반면, 이달 원화 가치는 약 2% 하락하면서 주요 31개 통화중 원화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쟁 중인 루블(-1.69%)과 이스라엘 셰켈(-1.54%)보다도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우려했던 국제 유가 급등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보복과 확전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0.7% 오른 90.45달러를 기록했다.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85.66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쟁 확전으로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쟁 확산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국은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불안 요소에 적극 대응하

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추가 상승 혹은 불안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침체의 그림자, 즉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 2.3% 유지

내년 2.3% 전망, 국내 예측치보다 높아
미국의 올해·내년 예측치 상향조정
ADB, 올해 韓 경제 2.2%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조정(+0.6%p, +0.2%p)하고, 일본은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국제통화기금은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2%대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

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라 예측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ADB와 AMRO 모두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및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 등 안정화를 점쳤다. AMRO 또한 ADB와 같은 예측치(올해 2.5%, 내년 2.0%)를 제시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에서 물가 오름세가 주춤할 것이라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사면초가 韓 증시’서 계속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2.42)보다 19.61포인트(2.30%) 내린 832.81에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86억원, 10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3.91%), 기계 장비(-3.46%), ITH/W(-3.42%) 등이 3%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한 달러 강세와 연일 상승하는 미 국채 금리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중동 긴장과 금리 부담을 악재로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시민중심 더 큰 파주

2024 PAJU

파주에서 열립니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라는 경기오인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파주 하라는 경기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THE 14th GYEONGGI-DO PARA GAMES 2024 PAJU
2024. 4. 25(목) - 4. 27(토) [3일간] 파주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PAJU 파주시체육회 | 후원: PAJU 파주시체육회, 경기도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THE 70th GYEONGGI-DO SPORTS FESTIVAL 2024 PAJU
2024. 5. 9(목) - 5. 11(토) [3일간] 파주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경기도체육회 | 주관: PAJU 파주시체육회 | 후원: PAJU 파주시체육회, 경기도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4. 25(목) 16:30~19:30 / 임진각 평화누리

정민호
 알리
 류원정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5. 9(목) 17:30~20:30 / 임진각 평화누리

다이나믹듀오
 에일리
 김화재
 송민준

전쟁 위기감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 금, 2400달러 육박

(온스 당)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국제 금 가격,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귀금속 매매, 일생일대 기회 될 수도”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 당 2400달러를 앞뒀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높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더 거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온스 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수준으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전일인 지난해 10월 6일 온스 당 1845.20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반년 만에 55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3월 미 CPI가 연준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3.5%를 기록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금 가격은 CPI 발표 이후에도 거래일 평균 0.34%의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주시리아란 영사관 폭격 이후 확산한 전쟁 위



중동 정세 불안에 안전 자산인 금값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고 있다. /뉴스시스

기감이 13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 및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중동 위기의 전개에 따라 금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전문 매체 골드시크(GoldSeek)의 피터 스피나 사장은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 가격은 모든 종류의 문제와 위험을 반영하며, 중동의 심각한 사건들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으면 전쟁 공포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는 귀금속 매매에 일생일대의 기회(buying opportunity of a lifetime)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사건 방향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금 가격은) 많은 구매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할 가

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BullionVault)의 아드리언 애쉬 연구소장은 “중앙은행의 구매 급증으로 시작된 금 가격 상승세가 지난주 중국 정부

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라 (변동요인이) 전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미국과 UN이 긴장 완화를 호소한 만큼, 테헤란(이란 행정부 소재지)은 문제가 일단은 종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반등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방송인 채널12(Keshet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여러 보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방안은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및 동맹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수출입 물가 3개월 연속 상승

중동정세 불안... 환율·유가 출렁
한달 새 수출입 물가 0.4%p ↑

수출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화학제품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이달 이란-이스라엘 관련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환율과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7.85로 한달 전(137.24)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1.2%)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0.88달러에서 지난달 84.18달러로 4.1%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1.0%), 광산품(1.0%), 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원유는 4.0%, 나프타는 1.9%, 커피는 4.7%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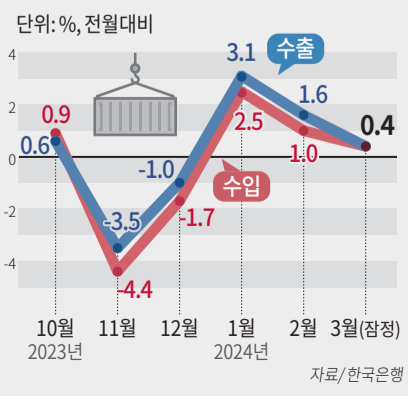
문제는 이달들어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를 넘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10원 오른 1383.70원으로 달러 강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는 시간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만큼 물가부담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수출물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물가지수 120.89로 전달(120.39) 대비 0.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가도 올해 1월(1.7%)부터 3개월째 올랐다. 화학제품(1.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9%), 섬유·가죽제품(0.6%)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 올렸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은 4월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출입 물가지수 증감률



100 YEAR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부경대학교 창학 100년

지금까지의 찬란한 100년! 앞으로의 위대한 100년!

혁신 창학! 힘찬 도약! New Beginning, New Inspiration

반도체 · IT · 디지털금융 · AI · 로봇 · 바이오

주전공, 융합 · 학생설계 · 마이크로 전공

대연 · 용당 · 기장 · 고성 캠퍼스 인프라

첨단 신산업 분야 학문 혁신 선도

미래 융 · 복합 창의인재 양성

동남권 지 · 산 · 학 · 연 혁신 캠퍼스 조성

반도체 패권 잡기 ‘전의 전쟁’... 美, 삼성전자에 9조 지원

삼성, 텍사스주에 패키징 시설 건설 최소 2만개 넘는 일자리 창출 전망
美서 파운드리 추가 등 투자 계획 텍사스 현지서 지역 경제 회복 기대

반도체 시장 패권을 잡기위한 ‘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한화 기준으로 약 9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득이 되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은 삼성의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패키징 시설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최소 2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지원을 위해 최대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에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러몬도 장관. /뉴시스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30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66억 달러)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브리핑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은 2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과 연구 센터 및 패키징 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또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에 파운드리 라인을 추가하고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짓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 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테일러시 공장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일러시에 4나노미터(nm) 이하 초미세 공정을 위한 파운드리를 짓고 있다. 추가되는 공장 역시 수nm급 공정을 위한 파운드리 기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약 4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도 지역내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창출할 대규모 일자리가 최소 2만여개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일간지 텍사스 트리뷴은 “최소 1만 7000 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삼성은 현지 반도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4000만달러(약 550억원) 규모의 기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지원금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삼성의 현지 시장 선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에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만큼 반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고객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팹 시설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운드리 및 패키징을 두고 삼성은 물론 TSMC, 인텔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전체를 공정한 서비스를 통해 북미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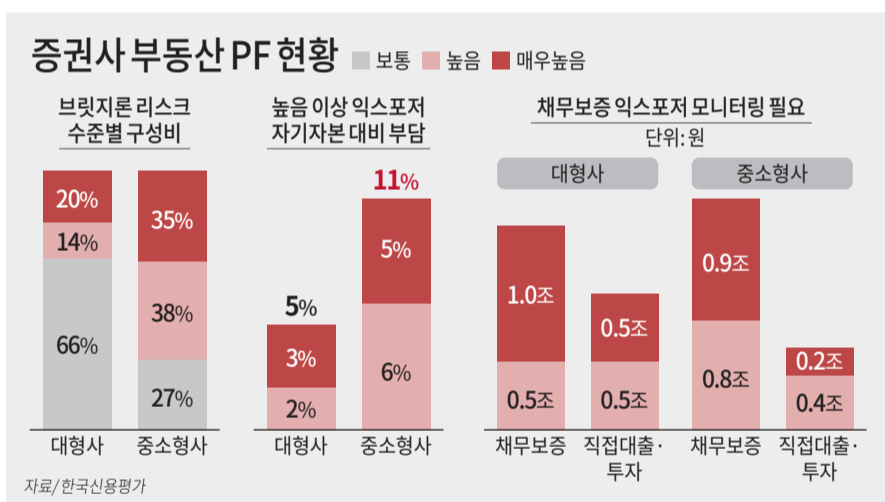
증권사, 부동산PF 총당금 추가 적립 ‘불가피’... 중소형사 ‘비상’

한신평, ‘부동산PF 스트레스 테스트’ 중소형사들 재무 위험 더욱 높아져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총당금을 쌓아 왔지만, 올해도 적립금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순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의 재무 위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최종 손실 위험이 높거나 매우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약 4조 8000억원, 총 브릿지론의 약 46%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신용평가가 전날 발표한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본PF 19조 5000억원, 브릿지론 10조 6000억원 등 30조 1000억원이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위



험성이 높고, 중후순위 대출일 경우 손실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브릿지론 관련 총당금 적립 강화 요구로 각 증권사들은 2023년 4분기 중 브릿지론에 대해 상당 수준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총당금을 반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총당금 관련 압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측에서 추정하던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총당금을 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부동산PF 잔액에 대한 총당금 적립률은 11%(대형사 10%, 중소형사 12%) 수준으로 2023년 9월 말 8%(대형사 6%, 중소형사 9%) 대비 완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부동산 PF 포트폴리오의 질적 차이가 주목된다.

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경우 서울·수도권 선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13%로 낮고, 지방·중후순위 비

중은 33%로 높아 위험도가 높다”며 “질적 구성이 열위한 중소형사의 경우는 실질을 고려할 때, 총당금 적립률이 낮아 추가 손실 부담에 일정 수준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과 본PF를 합한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인 익스포저의 자기자본 대비 부담을 계산했을 때, 대형사가 11%, 중소형사는 2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브릿지론 내 리스크 수준만 별도로 봤을 때는 ‘높음’ 이상의 익스포저 비중은 대형사 34%, 중소형사가 전체 73%를 차지한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자체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의 경우, 국내 25개 증권사를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별로 초대형사(5조원 이상), 대형사(1조원 이상), 중소형사(1조원 미만)로 나눴다.

이예리 한신평 연구원은 “초대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추가적립부담이 가장 낮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자기자본

의 약 3~6% 규모를 추가로 손실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초대형사 대비 고위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초대형사의 경우 본PF의 비중이 78%로 훨씬 높으며, 브릿지론(22%)의 비중은 낮다.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브릿지론 비중이 30%를 초과한다. 또한, 상환순위가 낮아 비교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한정해 초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관련 비중이 높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험 익스포저로 간주되는 중후순위 브릿지론 비중의 경우 초대형사는 8%에 불과하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20%를 상회한다는 부연이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보유 부동산 PF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기인식한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비중(11%)이 초대형사(6%)를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손실부담이 초대형사 대비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국민통합위 “이주민 생애단계별 등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자치참여제’ 특위, 18개 정책 제안 “이주민 정착지원·통합정책 밀거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생애 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근로자용 실무 한국어 교재 개발,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16일 ‘이주민 자치참여제 특별위원회(특위)’의 18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주민 관련 학계·언론·현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된 기구다.

특위는 먼저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라며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기업과 한국문화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작업장 유형별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도 제안됐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부터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만들어 이주근로자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시도교육청에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를 연 4회 제공으로 늘려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이 없

도록 제안했다.

또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센터’ 설치, 고용노동부·법무부·여가부 등 이주민 민원창구 일원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확대 개선 등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192석 확보한 범야권, 경제분야 상임위 입법 주도권 잡을 듯

민주당,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불평등 해소에 정부개입 적극 허용 R&D, 국가예산비 5% 수준 확보 재생에너지 자급률 높여 RE100 실현 가계대출 부담↓·생계비 계좌 도입 거부권 재의결 문턱... 걸림돌 될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뤘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

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21대 국회서 ‘농산물 가격안정법’ 통과시킬 것”

국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후위기에 작황 편차 등 이유 꼽아 장기적 재정소요에 與 반대 부딪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임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재갑, 안호영, 위성곤,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제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뒤 지난 1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오이가 진열돼 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이 서울시 16개 전통시장에서도 시행된다. /뉴스

월 농해수위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

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작황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최근 대과값 논란처럼 특정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생산이 과잉될 경우엔 생산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상당하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돼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철현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수산물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실시된 바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시범사업 연도였던 2016년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엔 552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생각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3 이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정당별 구성은 총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친민주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적 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물가와의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기에 때문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이 상임위에서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與, 네 번째 비대위 구성... ‘수직적 당정·영남당’ 탈피 목표

‘실무형 비대위’에 의견 모아 오는 6월 전당대회 열릴 전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위에서는 대통령 실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고,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

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거듭되는 지도부 공백에 조속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는 6월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 예측이 나온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거쳤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김기현 지도부는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집권 2년 동안 총 5명의 수장이

바뀐 셈이다. 윤석열 정부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두 달도 안 돼 당 차원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으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이후 정진석 비대위가 6개월간 운영됐는데, 지난해 3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전 대

표와 경쟁했던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이 공격 대상이 됐다. 친윤계 지원으로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등으로 취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만, 임박한 선거와 잦은 지도부 교체에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 부재했다는 평가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이어진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 측근들이 ‘내부 총질’로 몰

아갔던 분위기가 당내 분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이번 총선 지역구 당선인의 약 3분의2가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비대위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내달 초까지 담당하고, 이후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실무형으로 비대위가 운영되더라도, 혁신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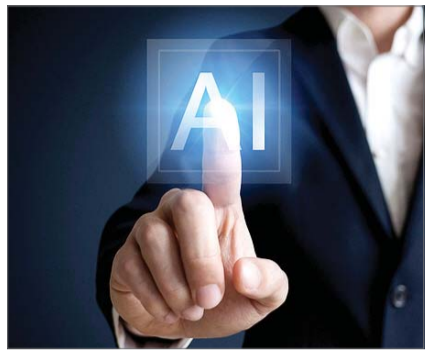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위험예측 모델부터 특약개발까지 보험업계, AI 활용 기술혁신 경쟁

ABL생명, 'AI OCR 솔루션' 탑재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더 빨라져
KB손보, 화재보험협회와 손잡고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 나서
한화생명, 3년간 청구서류 AI 분석
발병률 높은 주요3대암 특약 개발



보험업계가 사고보험금 지급, 위험 예측 모델 개발, 주요 암보험 특약 출시 등 다방면에서 AI 활용에 나서고 있다. /유토이미지

보험업계의 AI(인공지능) 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부터 위험 예측 및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산출까지 AI를 활용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AI 전문 업체인 애자일소다와 협업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에 'AI OCR 솔루션'을 탑재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지급받으려면 모바일·사이버 사고보험금 청구화면에서 질병분류코드, 병명 등을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이번 AI OCR 솔루션 탑재로 실시간 지급 조건 충족 시 고객이 업로드한 병원진단서 등의 이미지 속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입력돼 보험금이 고객의 계좌로 실시간 지급된다.

AI OCR 솔루션 탑재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 채널에서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령하고 AI OCR 스캔 시 자동으로

내용이 인식돼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기간도 단축될 예정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AI OCR 솔루션 도입으로 고객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도 증가돼 고객에게 혁신적인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과 화재보험협회는 AI 기반의 위험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쳤다. 양사는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의 공동 개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기술의 상호 협력 ▲위험예측 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 및 예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화재보험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위험

분석 데이터를 융합해 고도화된 AI 기반의 위험예측 모델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관리 및 예방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은 "KB손해보험과 화재보험협회가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신종 위험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산출에 AI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였다. 최근 3년간의 보험금 청구서류 약 500만건을 AI로 분석한 통계를 근거로 주요 3대암(위·간·폐) 특약을 지난 15일 출시했다.

AI 전문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손잡고 업계 최초 진료비 세부내역을 AI OCR로 분석했다. 답러닝을 통해 AI가 서류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게 해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통계 산출까지 AI를 활용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규특약은 AI솔루션이 적용된 당사만의 자체 통계 DB를 통해 고객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을 면밀히 관찰했다"며 "첫 사례로 발병률이 높은 주요 3대암(위·간·폐) 특약을 개발했고 추후 적용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질병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한화 건설부문 '3.3.3 안전 캠페인' 진행

한화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근절과 3대

사고 60% 감축을 목표로 전 현장 임직원 및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는 '3.3.3 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3.3 안전 캠페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의 3대 사고 감축을 위해 ▲3초 룰(Rule)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활동이다. 한화 건설현장에서 '3.3.3 안전캠페인'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규제 프리 '화이트 존' 내달 선정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선도사업 후보지 적극 발굴 요청

토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화이트 존(공간혁신구역)'이 어디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을 2배 이내에서

완화해 준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과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중 통화량 5.7조 늘어... 9개월 연속 증가

2월 M2 3929.9조, M1 1217.7조
정기 예적금·주식형 펀드에 유입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인식에 정기예적금 가입이 늘고,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풀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의 통화(M2)는 3929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증가했다.

M2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올해 1월 0.3%, 2월 0.1%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

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한달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예금금리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예적금 가입이 증가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증권도 6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금전신탁은 한달 전보다 9조2000억원 감소했다. 순발행이 이어지던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순상환되며 줄어든 영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머니마켓펀드(MMF)도 사회보장기구를 중심으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2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이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감소한 1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현금통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장기 현재 보유한 총주식은 14만500주

로, 총 발행주식의 0.07%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기준 7대 금융지주 회장 중 발행주식총수 대비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김기홍 회장은 2019년 취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매입을 단행,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김기홍 회장 등 JB금융 경영진 자사주 매입

JB금융그룹은 김기홍 회장과 경영진이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및 주주 가치 향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기홍 회장을 포함해 JB금융 경영진 8인 전원이 참여했다. 매입된 주식

은 총 4만5708주로, 금액은 약 5억9000만원 수준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주주환원 정책 및 전략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주 가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매입에서 가장 많은 2만주를 매입했다. 김 회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광폭 케이블 덕트 적용 CG.

/현대건설

현대건설, 아파트에 전기차 인프라 적용

'디에이치 대치'에 첫 통합 솔루션

현대건설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스마트 솔루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로이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성해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전기차 이용량 확대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동주택 주

차장에 ▲광폭 케이블 덕트 ▲스마트 배전반 등을 미리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및 구역을 자유롭게 증설토록 해 공간 효율성과 전력 관리 안정성을 제고하고, 충전기 추가 설치 시 입주민 부담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단지 내 충전기 위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5년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펠루이를 시작으로 적용 현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고유가·고환율·글로벌 제재 가속화 韓, 반도체·석화 등 주요산업 '비상'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항공, 해운업계 등 위기감 고조
"상황 예의주시... 장기화시 타격"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자제 방침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장기화와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 확산으로 국내 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해 항공, 해운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당장 영향을 받기보다 장기화 될 경우 실적 회복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자제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중동 정세 리스크 심화로 국제유가와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항공과 해운 업계는 당장 영향은 없지만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럽 등 노선 운항에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지만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 실적에 영향을 주는 항공유 인상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유류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여행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 이후 회복된 여행 수요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또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영향을 받지만 아직까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유가와 환율 상승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업계 부담은 확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쟁 확산으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운항 차질 및 운임이 오를 수 있어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 해운사 HMM 이 컨테이너선을 운항중인 곳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도 이어질 수 있다. 해운업계는 통상적으로 지출의 10~25%를 연료비로 사용한다.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증할 경우 실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은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는 산업 전체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

유·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경우 유가 상승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화될 경우 석유 제품 수요 약화와 정체마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업계도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유를 베이스로 하는 기초연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는 25센트(0.3%) 하락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융센터 정형민 세계경제분석실장은 "WTI 가격이 주말 이란의 공격에 따른 충격 진정 및 국제사회의 확전 자제 촉구 등으로 소폭하락했다"면서 "다만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및 사태 방향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는 지난 15일 부산 공장에서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 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노사간담회 개최

"부산공장, 내년부터 폴스타4 전기차 생산"

이정식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참여

올해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실적 부진을 예고한 르노코리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노사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노사간담회에는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을 비롯한 르노코리아 임원진,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모범적 노사 관계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

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는 'Born French, Made in Korea'를 토대로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부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오는 6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할 새로운 중형 하이브리드 SUV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후반에는 폴스타4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부산공장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8종까지 혼류 생산이 가능한 부산공장의 생산 유연성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 유럽에 '오피짓 유나이티드' 전한다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단독 전시
5개 공간 기획... 디자인 철학 공유

기아가 글로벌 최대 디자인 축제에 참가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알린다.

기아는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는 푸오리살로네에 참가해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뮤제오 델라 페르마네펀테'에서 단독으로 상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장은 로비에서 메인 전시 공간까지 총 5개의 공간으로 기획됐다. 기아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아



기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 전시 공간

티스트들과 협업, 오피짓 유나이티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해 공간을 채웠다.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 접근은 오피짓 유나이티드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차이점마저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시 전시뿐 아니라 디자인을 주제로 포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전시장 2층에 준비된 무대에서는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가 매일 저녁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을 집약한 전시"라며 "우리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기아의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기아,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지원

거리 입력 등 절차 대폭 간소화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이 편리하게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반의 차량 운행 정보와 서울시 승용차용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연동해 주행거리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운전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대표 친환경 정책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거나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와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차·기아의 드라이빙 인사이트 연동으로 현대차·기아 고객에게 최초로 제공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 시범 운영

LG전자 협력... 협동로봇 활용

두산로보틱스가 LG전자와 함께 협동로봇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와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 시범 운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들

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LG전자의 1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이 솔루션은 차량 인식 및 정산을 위한 키오스크와 자동 충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가 전기를 충전 가능 구역에 주차하면 별도 설치된 카

메라가 차량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운전자는 인증을 완료한다. 이어 협동로봇에 부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원위치시키고, 자동 결제가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고객·주주 소통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고객·주주들과의 소통 창구인 '뉴스매거진'을 공식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존 사내 웹진을 사외 채널로 확대 개편하면서 회사 소식을 투명하게 알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취지다.

뉴스매거진은 ▲국내외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프

레스' ▲보도자료 외 80여 개 글로벌네트워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모은 '인사이드뉴스' ▲분야별 전문가들의 글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스토리'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컬처' 등 4가지 코너로 구성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뉴스매거진 신설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도 리뉴얼했다.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과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했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뉴스매거진' 오픈

‘플랫폼’ 직관적·손쉬운 사용… IT업계, UI·UX 전면 개편

기업·앱 브랜드 정체성 재정립
배달의민족, 개인별 맞춤 화면 제공
고객 선호도·업주 지속성장 중점
스마트스코어, 토탈 플랫폼 도약
개발에 200억 이상 예산 투입도

B2C 서비스 IT 업계의 UI/UX(사용자 경험 디자인) 개편이 잇따르고 있다. 세분화·고도화 해 복잡한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를 붙잡고 기업과 앱(APP)의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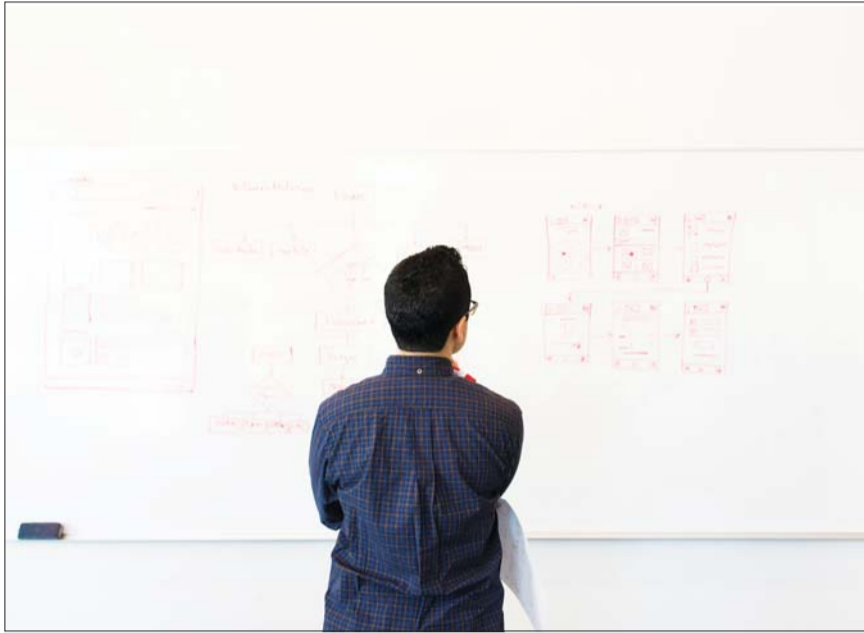
16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스마트스코어 등 주요 B2C IT 기업들이 이달 UI/UX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이달 UI/UX를 개편을 시작하면서 서비스별 탭 도입과 이용자 최적화에 중점을 뒀다. 음식 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장보기·쇼핑, 배민 선물하기 등 서비스가 확장하면서 복잡해진 서비스를 한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개인별 맞춤형으로 노출 화면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같은 골자에 맞춰 다양한 UI/UX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한 신속히 개편을 완료해 새로운 UI·UX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는 “배민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사장님의 성장, 배민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홈 화면과 고객 이용경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고객의 선호도와 편의성, 업주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업주분들의 의견도 경청하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스코어도 지난 11일 UI/UX를 전면 개편하고 골프 토탈 플랫폼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개편을 통해 서비스 메뉴를 홈 화면을 중심으로 MY스



UI/UX 개편을 위해 사용자의 이용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UI/UX는 사용자의 사용방식과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 분야다. /PEXELS

코어, 골프예약, 쇼핑 등 3개로 통합했다. 데이터 중심으로 25가지 서비스가 나열된 상태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스코어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골프의 모든 것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개편은 1년 이상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이뤄졌다. 개발 전담 인원만 300명 이상, 2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다.

앱 개편을 담당할 박종철 CTO는 “골프의 모든 것을 스마트스코어 앱 하나로 통해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UI와 UX를 완전히 바꿨다”며 “스마트스코어의 지향점인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버전을 시작으로 글로벌 국가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론칭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 내 공격적인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뜻하는 UI/UX는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이용자와의 상호교감적 모델을 개발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다.

기술 발전으로 앱 서비스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UI/UX는 이용자

를 록인(Lock-in)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앱 사용 화면 형태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되면서 기업의 피벗(Pivot)에 UI/UX 개편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팬데믹 이후부터는 중노년층 이용자들의 B2C 서비스 앱 사용이 계속 늘면서 직관적이고 손쉬운 사용을 위한 디자인 개편이 계속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이용자 개인화를 위한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사용 경험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UI/UX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용방식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학습 속도와 경험, 반응을 고려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UI/UX는 기업 입장에서 한 번 교체하는 데에 굉장한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기업 내 개발자와 디자이너 뿐 아니라 마케팅과 기획자 등 거의 모든 영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작업인 만큼 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이 크다. 대신 단기적으로 개편 직후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와 장기적인 충성 이용자 확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기업용 ‘생성 AI 플랫폼’ 확대

‘디에이피 젠AI 플랫폼’ 강화

LG CNS는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디에이피 젠AI 플랫폼’을 대폭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월 출시한 언어 생성형 AI 솔루션인 젠AI 텍스트에 ▲놀리지 레이크(Knowledge Lake) ▲젠AI 이미지 ▲젠AI 톡 등 3개 솔루션을 추가하며 전면 고도화했다.

기업 고객은 자체 서버, 클라우드 등 보유 중인 인프라에 ‘디에이피 젠AI 플랫폼’을 설치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을 생성하는 정보 왜곡현상(할루시네이션)은 고객이 보유한 문서나 데이터와 같은 내부 정보자산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한다.

‘디에이피 젠AI 플랫폼’은 새롭게 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을 바로 탑재할 수 있어, 고객이 항상 최신의 AI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놀리지 레이크’를 활용하는 기업 고객은 생성형 AI로 사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수십만 페이지의 문서를 확인할 필요없이 질문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지식화된 내부 문서를 분석해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 고객은 ‘젠AI 텍스트’를 통해 원하는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문서 요약,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즉시 배포해 사용할 수 있다. LG CNS는 사전 검증을 마친 수십 여종의 AI 서비스와 AI 프롬프트를 ‘젠AI 텍스트’에 탑재했다. LG CNS는 선점제되는 AI 서비스와 AI 프롬프트의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객이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미세조정(파인튜닝)해 비즈니스에 특화된 LLM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김서현 기자

LGU+, ‘틈byU’ 열흘간 감성 카페로 탈바꿈

‘데일리 링크드 커피’ 팝업 전시

LG유플러스는 이달 21일까지 커피 리브레와 손잡고 ‘일상비밀상의틈byU+’에서 커피와 고객을 연결한다는 콘셉트의 팝업 전시 ‘데일리 링크드 커피’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고품질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스페셜티 커피의 자부심’으로 알려진 커피 리브레와 틈byU+에서 이달 21일까지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 이는 커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405잔)은 전 세계 평균(152잔)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연남동에서 한 카페로 시작

한 커피 리브레는 현재 세계 16개국 200여 농장과 직거래한 생두를 볶아 국내 600여개 카페에 공급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다. 세계 커피 로스팅 대회 ‘월드 로스터스 컵’에서 2012~2013년 연속 우승하고 작년에는 직영 농장 ‘핀카리브레’가 세계 최고 권위의 커피 품질 경쟁대회 ‘컵 오브 엑셀런스’에서 8위에 들었다.

전시 기간 동안 고객은 틈byU+에서 커피 리브레 바리스타가 현장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다. 원두 종류는 싱글오리진 3종이며 최대 2종 시음 가능하다. 시음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준비된 그라인더를 활용해 볶아진 원두를 갈고 여과지를 활용해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며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 C&C, 화성시 수출기업에 ESG 컨설팅

21개 기업에 기초·특화컨설팅
종합 ESG경영관리플랫폼 제공

SK C&C가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4년 화성지역 ESG 경영 컨설팅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16일 SK C&C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들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과 같은 ESG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국 기업들 대비 우수한 ESG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SK C&C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기업 21곳에 맞춤형 디지털 ESG 컨설팅을 진행한다.

ESG 관리 체계 확보가 우선인 16곳에는 ▲ESG 경영 수준 진단 ▲개선 과제 도출 ▲현장 이행 가이드



등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을 지원한다.

즉각적인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5곳에 대해서는 디지털 ESG 기초 컨설팅에 더해 ▲개선 이행 모니터링 ▲실행 밀착 지원을 통한 추가 개선 지원 ▲온실가스 목표관리 서비스 등 특화 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SK C&C는 빠른 ESG 컨설팅 서비스 전개를 위해 국내 2600여곳이 넘는 기업 및 단체에서 활용 중인 종합 ESG 경영관리 플랫폼 ‘클릭 ESG’를

제공한다. 이에 맞춰 화성상공회의소는 자체 운영중인 ESG경영지원센터 플랫폼에 클릭 ESG를 연동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윈스톱 ESG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클릭 ESG에 접속해 각각 관련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면 ▲산업별 ESG 핵심 지표 평가 ▲동종 업계 비교 ▲세부 개선 영역 제시 등을 포함한 ESG 진단 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방수인 SK C&C 디지털 ESG그룹장은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수출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KT, AICT로 달라지는 일상 속 변화 선포

오늘부터 19일까지 WIS 2024 참여

KT가 일상의 변화를 불러올 차세대 인공지능통신기술(AICT) 서비스를 공개한다. KT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2024(WIS 2024)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AICT 컴퍼니, KT’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학교, 일터 등 고객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AICT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 입구에 마련한 스페셜 존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인사이트 플랫폼’과 AI가 만들어주

는 이미지 생성기술 ‘AI 크리에이터’, AI 지도 검색 서비스인 ‘GIS AI 검색 서비스’ 등을 공개한다.

KT는 2020년부터 콜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한 노하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 AI컨택센터(CC) 기술도 공개한다. AICC 셀프 가입과 구축, 상담이 가능한 클라우드 콘택트 센터 ‘KT 에이센(A’ Cen) 클라우드 서비스’와 ‘똑똑한 AI 보이소봇’을 활용한 업종별 챗봇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KT는 이동 테마존에서 미래 네트워크 관련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구남영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후 원: 충청북도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

‘셀 코리아’ 우려에 “지정학적 요소 해소되면 안정 찾을 것”

코스피 2% 이상 ↓... 2600선 위협
外人 2746억, 기관 2934억 순매도
“주식·환율 맞물려 오버슈팅 상황
과도한 변동성 줄어줄 것” 예측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 급등 기조에 ‘셀(Sell) 코리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요소가 해소되면 환율도, 외국인 주식 매도세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외환시장에서 알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에 닿았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는 2022년 11월 8일(1406.5원, 종가 기준)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코스피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며 2600선을 위협받았다.

특히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연일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16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8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1

매각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746억원, 기관은 293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앞서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선 지난 12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7억원 순매도했고 1380원을 돌파한 지난 15일에는 2554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주요 대장주 중 하나인 삼성전자도 오후 장중 7만9400원까지 내려나

폭을 키우며 8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원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2거래일 만이다. 이 역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의 순매도

추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상승구간에 국내 주식을 많이 사들인 외국인들이 리스크 요인이 커지자 매도로 수익을 확정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줘야 한다고 예측하면서도, 지정학적 이슈만 해결되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1400원대 환율은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환율이 1300원 중반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2분기 내로는 그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며칠 사이 전성요인으로 낙폭을 크게 보였으나 추가적으로 전성이 확전 되지 않으면 더 큰 낙폭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과 환율이 맞물려 오버슈팅이 일어난 상황인지라 지정학적 이슈가 잠잠해지면 과도한 변동성은 줄어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을 기록한 가운데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는 코스피 하락폭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진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원화약세 현상만 없다면 조만간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반도체株 약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삼성전자 2.28%, SK하이닉스 4.48% ↓
중동지역 긴장감에 금리인하 전망 후퇴
美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일제히 하락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이자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시장이 혼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28%, SK하이닉스는 4.48% 떨어지면서 반도체주 반등 기대감을 약화시켰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들어 큰 폭



삼성전자.

으로 상승하면서 ‘8만전자’에 이어 ‘10만전자’까지 언급됐다. 지난 4일에는 8만5300원을 돌파했으며, 8일에는 장중 8만6000원까지 치솟으면서 가파



SK하이닉스.

른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중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대내외 악재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SK하이닉스는 4일 전인 12일만 해도 장중 19만1400원까지 터치하면서 ‘20만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는 기존 최고가인 19만500원을 갈아치운 기록이기도 하다. 다음 거래일인 15일에도 종가 기준 18만82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6일에는 외국인이 2628억원을 순매도하면

서 전장보다 4.48%나 급락했다.

이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힘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할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2.5%), 브로드컴(-2.5%), AMD(-1.8%) 등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인해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0원을 터치했다가 1394.5원에 마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추가 상승 혹은 불안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학개미,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저가매수’ 공략

해외주식 Click

美 금리인하 불확실성 커지자
엔비디아 7207만달러 순매도
테슬라 7235만달러어치 순매수

올해 초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쏠렸던 엔비디아가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테슬라는 다시 순매수 종목 1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지난주(4월 9일~15일) 엔비디아를 7207만달러 순매도한 반면 테슬라를 7235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급등세를 탔던

인공지능(AI) 반도체주 대신 올 초 250달러 정도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로 최근 160달러선까지 밀려난 테슬라를 저가 매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CEO가 올해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1.5배의 수익을 거두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X’(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을 1460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인한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68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 4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전기차 시장 침체로 테슬라는 전 세계 인력의 10%를 줄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 이번 해고 인원은 1만4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슬라 성장세에 회의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이번 정리해고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 전체에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해졌고 성장 전망이 둔화된 가운데 안타깝게도 비용 절감을 위해 테슬라가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테슬라가 앞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이벤트

한투운용, 내달 30일까지 가입 행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달 30일까지 한국포스증권과 ‘한국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16일 밝혔다.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5대 대표그룹과 그 계열사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12월 설정됐다. 인도 5대 대표그룹은 ▲타타그룹 ▲릴라이언스 ▲인포시스 ▲HDFC은행 ▲바자즈다.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정보 기술 기업부터 에너지, 금융, 경기소비재까지 다양하게 분산돼 있다.

인도 경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모디노믹스(Modinomics)’ 정책 아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는 세계 5위 수준(약 3조3851억 달러)에 달하고, 2023~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친기업적인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꼽힌다. 이달 진행되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예상되는 만큼, 모디 노믹스로 인한 인도 경제 및 5대 대표그룹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입장에서는 한국투자인도5대 대표그룹펀드에 가입 시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없이 인도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한국 투자 인도 5대 대표그룹 펀드 가입은 현재 9개 판매사에서 가능하며, 이 중 한국포스증권에서는 ▲S클래스 ▲S-P클래스 ▲S-R클래스를 판매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첫 지정 기대감

30일 규제자유특구위서 최종발표 중기부, 특구 신규 지정안 등 심의

오영주 중기부 장관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자유로운 비즈니스환경 구축 노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이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명단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

정 안전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심의위원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국제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를 좁히기위해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한다

입을 발표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진진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한다.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 중전압) 기술 실증으로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안건상정 후 심의됐다. 세부 내용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경북이 추진하는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관련 표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고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 밖에도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시몬스 ‘뷰티레스트 1925’ 가정의달 프로모션

시몬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선물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을 위한 ‘뷰티레스트 1925 프로모션’을 펼친다.

16일 시몬스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1925는 업계 최초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ESG 침대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가격의 5%가 내년 완공 예정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쌓인다. 지난해 2월 출시 후 연말까지 2000개 넘게 팔리며 누적 기부금 4억원을 달성했다.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꿀잠을 선물하고 착한 행보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 중인 학부모들은 뷰티레스트 1925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함께 가치 소비의 참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시몬스는 국내 침대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매년 갱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 등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를 실천하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5월 동행축제 참여 우수기업 300곳 최종 선정

공개모집·추천 등 총 1139곳서 신청 대형플랫폼·온라인 판촉전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과 추천선발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다. 공개모집 956개사, 추천 183개사 등 총 1139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동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

졌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백년가게 제품 ‘따귀탕’, 건강주스, 떡볶이 등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30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소진공 박성호 이사장, 카카오임팩트 육심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카카오, 지역상권 활성화 맞손

단골거리·단골시장 사업 추진 지역상권·상점가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카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5일 대전 본부에서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디지털 튜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 추진 ▲상권 및 개별점포 특채널 메시지 비용 지원 ▲우수시장 대상 디지털 광고-판매-결제 구축 지원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소진공과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2022년부터 카카오 단골시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단골거리’ 사업을 신설해 전국 26곳의 지역상권·상점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에 상권 단위 홍보채널 개설, 행사 개최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너지를 높인다.

/김승호 기자

기존 ‘단골시장’ 사업은 올해 100곳 이상의 전통시장을 신규 선정해 추진하며, 이 중 5곳 내외의 우수시장에는 디지털 기반의 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카카오의 디지털 튜터가 지역상권·전통시장에 파견돼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 교육과 함께 지역 특색과 연계한 단골거리, 단골시장 조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개별점포 가맹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와, 카카오 맵 내 백년소상공인 지정 업체 2325곳을 신규 등록해 백년가게 인지도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과 매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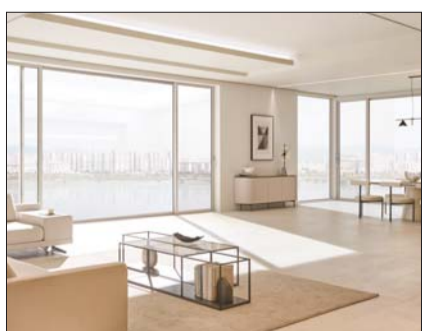
LX하우시스, 미니멀·단열 잡은 창호 선포

‘LX지인 창호 뷰프레임’ 출시

LX하우시스가 완벽한 뷰를 선사하는 창호 신제품 ‘LXZ:IN(LX지인) 창호뷰프레임(VUEFRAME)’(사진)을 출시했다.

1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뷰프레임’은 기존 PVC창호와 차원이 다른 미니멀한 디자인과 로이유리 1장만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현이 가능한 단열능력이 뛰어나다.

먼저 ‘뷰프레임’은 간결하고 깔끔한 ‘미니멀 디자인’을 제품 전반에 구현했다. 국내 창호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



틀은 거의 안 보이고 창밖만 보이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도입하고 창밖 높이까지 최대 14mm 줄여 슬림해진 프레임으로 더 넓어진 뷰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자동차 부품 新시장 개척 확대... 올해 수출 234억弗 목표

산업부, 車수출 목표 984억弗 설정
강경성 1차관, 코넥 서산공장 방문
지원사업 범위 등 하위 법령 마련

정부가 올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도전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수출은 완성차 175억달러, 자동차부품 58억달러 등 총 233억달러로 1분기 중 역대 최대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수출 938억달러 중 약 25%는 자동차부품 수출로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는 우리 부품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984억 달러로 설정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34억 달러로 설정해 적극 지원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차 신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차 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425억원을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운용자금도 공급한다.

한편 강경성 1차관은 이날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모터 케이스 등 미래차부품을 생산해 테슬라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코넥의 서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연차 부품 제조사였던 코넥은 지난 2018년 경영환경이 악화됐으나 산업부의 사업재편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을 통해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매출 중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의 수출확대도 필요하다"며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연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신속·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부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장관, 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축산물, 국민 식생활서 중요한 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화학물질 배출량 줄고, 발암물질은 늘었다

환경부, 3832개사 화학물질 배출량
국내 발암성 물질 배출 200t 넘어
화학물질 전년비 6.4% 줄어들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 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

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美 보잉사와 방산 등 고도화 논의

보잉사 연구개발 총괄책임자 접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사(Boeing) BR&T(Boeing Research & Technology)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2020~2024년, 118억원)'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인공지능) 시스템(2022~2025년, 280억원)'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

잉 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지난 2019년 한국에 보잉 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보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잉항공기 최첨단 생산 시스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분야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中企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수출성장플래닛 프로그램 기업 모집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6일 중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수출성장플래닛(Plan it!)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규모에 따라 '이머징 스타'(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 '라이징 스타'(300만달러 이하), '사이닝 스타'(300만달러 초과) 등 3단

계 맞춤 우대지원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무보는 대상 기업이 필요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비용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자금길을 터줄 계획이다.

또 선정 기업은 무보의 보험·보증 항목을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되며,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각종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무보는 대상기업을 공개모집 후 서류·방문심사와 전문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단계별 지원대상기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해요"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더 유리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계약 필요성 및 조건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 행사 활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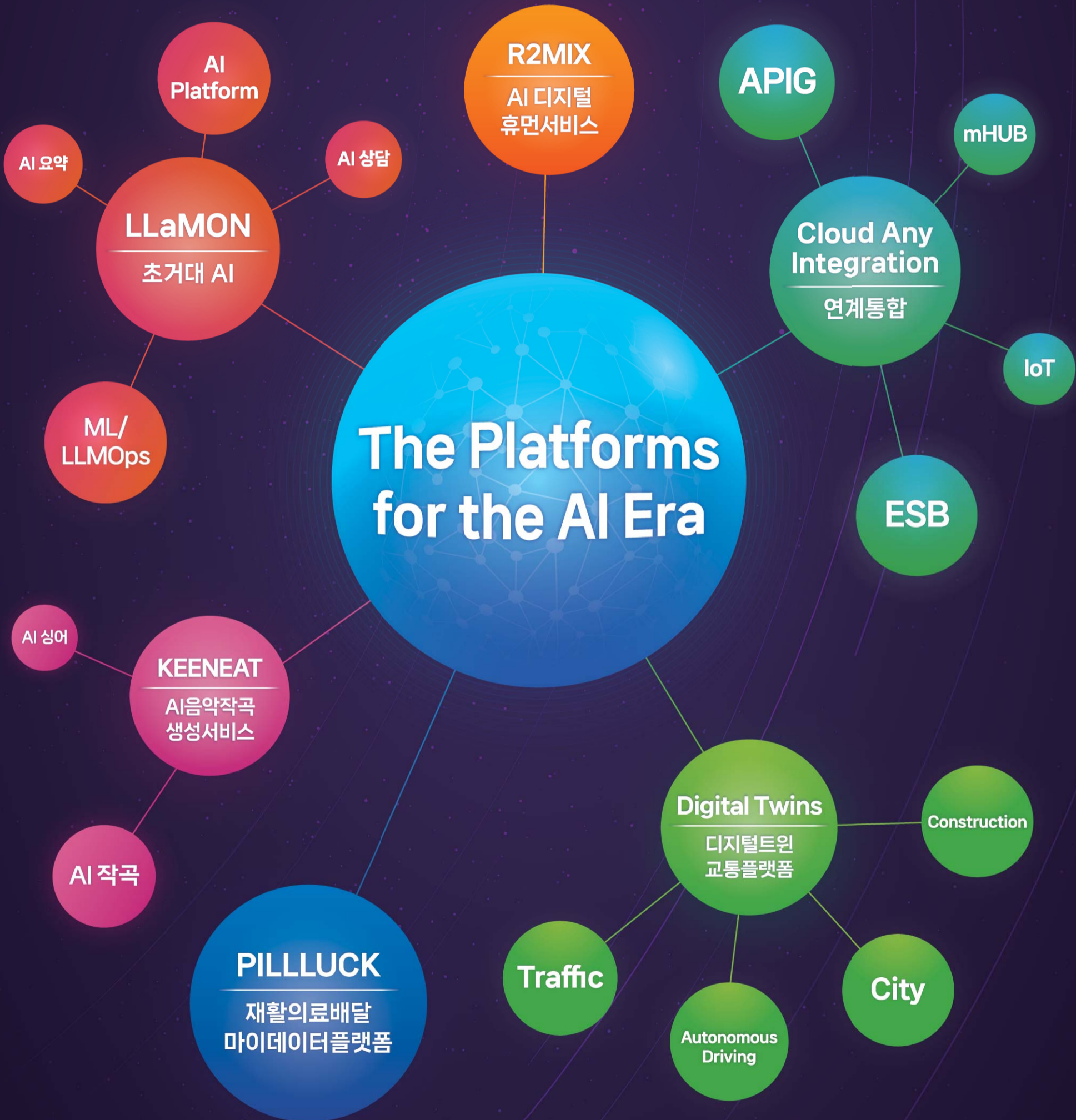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포항시, 30개사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첫 발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출범식
(㈜협스 등 5개사와 MOU 체결
4만여㎡ 부지에 1150억 투자



포항시는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업과 시험·평가 장비 사용 기업 등으로 구성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두산퓨얼셀, SK에코플랜트, 협스 등 협의체 가입 기업 30개사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안종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실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포항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신경종 포항테크노파크 수소클러스터 추진단장은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입주 예상 시기, 구축 장비 목록 등을 공개했다.

이후 클러스터 입주 의향을 가장 먼저 밝힌 (주)협스, (주)에너지엔퓨얼, (주)에프씨아이를 포함한 5개 사에서 포항시, 경북도와 총 4만984㎡ 부지에 1150억원을 투자, 약 6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시는 향후 기업 집적화 유망 지역을 요건으로 하는 수소특화단지 유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는 향후 신산업 분야인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공동 국책사업을 발굴해, 수소 분야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립회원사로 두산퓨얼셀, 미코파워, 협스, 에프씨아이 등 연료전지 분야 선도기업과 관련 중소기업까지 총 30개 사가 가입했으며, 향후 회원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협의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포항 특화형 수소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K-수소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지역기업이 앞으로 포항시를 넘어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내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활성화 지원, 수소 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협의체 회원사만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광양시는 시민들 대상 시정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시정에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방안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방안 ▲매화축제 수익창출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 시민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4개의 주제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3주간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설공

장애인의 날 맞아 보라색 점등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의 주요 상징물이 보라빛으로 물든다.

부산시설공단은 2024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 8시~9시 1시간 동안 광안대교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의 경관 조명 전체를 보라색으로 점등하는 '#WeThe15'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WeThe15은 '우리가 바로 15%'라는 뜻으로 전 세계 약 80억 인구의 15%인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 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지구촌 인권 운동으로 한국에선 2022년 처음 시작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고창군,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 선정 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 개발 탄력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 일환
관광기금 융자우대 등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로 선정되면서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등 민자유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혜택(관광기금 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연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후보 대상지로

는 전국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지정요건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 정도로 줄이고,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승인 권한역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주)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엔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주변 부지와 관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진행된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 우호도시 교류 협정 체결식. /뉴시스

경북도, 中 랴오닝성과 우호도시 협정

이철우 도지사, 리러청 성장 부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교류 방안을 계속 논의해오면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이 지사의 방문이 이뤄졌다.

이날 협정은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두 지역의 교류는 지난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으로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역내총생산(GRD P)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렌시에 있는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또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울산시, 해오름동맹과 36개 사업 추진

'2024 도시발전 시행계획' 수립

울산시는 수도권과 상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교통기반(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 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단일 경제권 형성 ▲초광역 교통망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

동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지능형(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오름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묶인 울산·포항·경주 3개 도시가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복합재난 해양사고 대응 훈련

해양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합동

부산시는 16일 오후 1시 부산항대교 앞 해상 일원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일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이다. 이번 훈련은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훈련 주관은 시와 해경이 공동으로 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구조협회부산지부, 중구 보건소 등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가상의 여객선 안전호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던 중 원인 미상의 동력 상실에 따라 조타 불능 상태로 부산항대교 교각과 충돌 후 표류하게 되고, 표류자 구조와 선박화재 진압 등에 나서는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설정해 훈련의 실제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독도 그리고 해녀' 공동기획전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그리고 해녀"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문화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시로 2023년 해녀박물관에서 1차 공동기획전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는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역사와 활동내역, 조업방식의 변화 등 울릉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초여름 날씨... 유통업계, 냉장·냉동식품 관리·배송 '이상무'

티몬 T프라임에 '프레시몰' 신설 냉장·냉동식품 신선배송 서비스

G마켓 '스마일배송 저온센터' 운영 저녁 8시 이전 주문시 익일배송

롯데마트 냉동식품 매출 10% ↑ 프랑스 브랜드 '피카드' 상품 준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냉동매대에서 피카드 상품을 들고 홍보하는 모델의 모습. /롯데마트

최근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자 유통업계가 식품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신선 식품 배송을 위해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신설하는 등 고객들의 편의성과 쇼핑만족도에 초점을 맞췄다.

업계는 코로나19장기화,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으로 냉장·냉동식품에도 소비 트렌드가 변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급격히 더워진 탓에 냉동식품 소비도 큰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된 이색적인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15일 통합 풀필먼트 서비스 'T프라임'에 '프레시몰'을 신설하고 냉장·냉동식품 신선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레시몰'은 냉장·냉동식품 전문 신선 풀필먼트 서비스다. 물류 관계사인 큐익스프레스와 함께 입점 파트너들의

재고관리와 주문, 배송을 한번에 지원해 편의성과 쇼핑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티몬에 따르면 최근 날씨 영향과 집밥 수요 증가 등으로 간편식 주문이 늘어났다. 티몬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냉장·냉동·식품 거래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1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소시지·핫도그·피자·어묵 257%, ▲만두·돈까스·치킨·튀김 157%, ▲양념·육가공·수산 103%, ▲탕·찌개·국·쿠김박스 60% 등이 각각 늘었다.

G마켓은 전용 배송서비스 '스마일배

송'의 고객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멤버십 회원의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일배송은 G마켓이 2014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익일합포장 배송 서비스다. 여기에 식품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G마켓이 콜드체인 플랫폼 토타레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경기도 이전에 구축한 '스마일배송 저온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배송 저온센터를 활용하면 냉장과 냉동에 최적화된 전문센터에서 상

품의 보관과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스마일배송 저온센터에 입고된 상품도 일반 스마일배송 상품과 동일하게 익일배송 시스템이 적용된다.

저녁 8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받아 볼 수 있는 빠른 배송과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G마켓의 핵심 서비스이다.

G마켓 관계자는 "현재 냉동 상품을 대상으로 저온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냉장상품까지 영역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스마일배송 저온상품의 가짓수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롯데마트의 냉동식품 매출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프랑스 인기 냉동 식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들여오면서 업계가 주목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인기 냉동 식품 브랜드 '피카드(Picard)'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 단독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피카드'는 1906년 설립해 달팽이 요리, 코코뱅 등 프랑스 정찬부터 식재료인 채소와 과일, 디저트까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냉동식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프랑스 냉동 유통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차지할 만큼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번에 선보이는 피카드 상품은 프랑스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받고 있는 상품 위주로 준비했다. '피카드 버터 크로아상(440g)'과 '피카드 초코 버터 케이크(330g)'와 같은 베이커리류, '피카드 트러플 탈리아텔레 파스타(250g)'와 '피카드 냉동 알감자(450g)'와 같은 간편식을 포함해 총 11종이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상품들의 합리적인 가격을 위해 해외 직소싱 프로세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간에 벤더사를 끼지 않고 피카드 업체에서부터 곧바로 수입을 진행함으로써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오프라인 단독으로 판매하는 '피카드' 상품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 서초점을 포함한 30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병구 롯데마트·슈퍼 식품수입팀장은 "이번 피카드 상품 도입은 롯데마트의 글로벌 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다양한 냉동 식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지난달 출시한 11종 외에도 달팽이요리인 에스카르로나 토마토 소스 요리인 라파뚜이 등의 신규 피카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운영 점포 또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홈플러스, 마트서 장보고 식사하는 고객 늘었다

메가푸드마켓 리뉴얼 오픈 1년 차 식품 매출 34%, 식음료 테넌트 54% ↑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과 몰(Mall) 식음료 테넌트(입점 매장)의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서는 리뉴얼 오픈 1년차 점포의 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고, 식음료 테넌트 매출은 54% 늘었다. 신선식품의 경우 모든 카테고리 매출이 올랐다.

회사 측은 고물가에 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보는 동시에 식사까지 편리하게 해결하는 고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홈플러스 몰 식음료 매장



모델이 1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 푸드코트 '더 홈 키친'에서 쇼핑하는 모습. /홈플러스

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을 '홈플 ONE 등급제'로 개편하면서 마트, 온라인, 몰, 익스프레스 멤버십을 하나로 통합했다. 등급별로 몰을 포함한 홈플러스 전 채널

에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쿠폰'이나 3만원 이상 결제 시 7% 또는 5% 할인이 가능한 '몰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홈플 ONE 등급제' 론칭 이후 '통합쿠폰'을 이용해 할인을 받은 고객은 145

만명, '몰 할인 쿠폰'을 통해 할인을 받은 고객은 15만명에 달했다. 3월 '통합쿠폰', '몰 할인 쿠폰' 사용 고객은 전월 대비 32% 늘었다. 따뜻한 봄철 외출 증가로 씬 씬이는 커졌으나, 높은 물가에 조금이라도 쇼핑 할인 혜택을 챙기려는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것도 홈플러스 몰의 장점이다. 홈플러스 몰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푸드코트 '더 홈 키친'은 물론, '쿠우쿠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다양한 식음료 앵커 테넌트를 보유하고 있다.



SSG닷컴 랜더스백 유니폼 선판매

SSG닷컴이 올해도 '랜더스백'을 가장 먼저 공개한다.

SSG닷컴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SSG랜더스 스타벅스 데이를 기념해 16일 오전 10시부터 SSG랜더스와 스타벅스(SCK컴퍼니)가 협업해 출시한 랜더스백 유니폼(사진)을 단독 선판매한다고 밝혔다.

랜더스백은 매 시즌 발매될 때마다 화제를 모아온 슝닷컴 SSG랜더스 공식 스토어의 베스트셀러다. 특히 지난 시즌 새롭게 추가된 민트 색상 유니폼은 공개 당시 4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완판되었으며 관련 키워드가 슝닷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을 정도로 인기였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 민트 색상 유니폼 물량을 900장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 그린 색상 유니폼도 600장을 기획, 두 컬러를 합쳐 총 1500장의 랜더스백 유니폼을 준비했다.

이번 랜더스백 유니폼은 기본 홈 유니폼 디자인에 스타벅스 고유의 그린 색상과 민트 색상을 적절히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두 색상 유니폼 모두 90~120까지 총 6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13만5000원이다. 구매한 유니폼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모자와 전용 마킹지는 따로 출시되지 않는다.

/최빛나 기자

G마켓·옥션, 빅스마일데이 참여셀러 모집 하림 푸디버디, '팝콘치킨' 3종 출시

첫 참여자 'AI매출업 광고' 서비스

G마켓과 옥션이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행사에 참여할 셀러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빅스마일데이는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열린다.

행사 참여 셀러에게는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한 '광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빅스마일데이에 처음 참여하는 셀러라면 고효율 개인화 광고 상품인 'AI매출업 광고'를 7일간 무료로 경

험해볼 수 있다. 여기에 행사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AI매출업 이머니 5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자광고센터 이머니(CPP) 10만원 등이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 3종 기프트를 제공한다.

물류보관비도 지원한다. 익일합포장 서비스 '스마일배송'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셀러의 경우 가입 달을 포함해 4개월간 물류보관비가 무료다. 여기에 입출고 시스템 및 포장, CS처리 등의 풀필먼트 운영비를 50% 할인한다.

/최빛나 기자

100% 국내산 닭가슴살 사용

하림은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가 '팝콘치킨' 3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부드러운 순살 팝콘치킨', '흔들흔들 팝콘치킨 양념치킨맛/바베큐맛' 등 총 3종이다. 앞서 선보인 '흔들흔들 팝콘치킨 달콤치즈맛/짜장맛' 제품에 대한 어린이들과 부모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푸디버디 팝콘치킨 라인업을 강

화하게 됐다.

지난해 출시된 '흔들흔들 팝콘치킨'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주얼과 직접 흔들어 먹는 재미있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쿠팡에서 여러 차례 일시 품절 사태를 빚은 바 있다.

팝콘치킨은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12시간 냉장 숙성한 후 통째로 깨끗한 순식물성 기름에 튀겨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며,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에브리데이 합친다... 원가 경쟁력 등 시너지 극대화

‘통합 이마트’ 출범... 고객 혜택 ↑
올해 조직 정비 등 기반 다질 것
“지속가능 수익·성장성 확보 전략”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와 합병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고객 혜택을 증대하는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이마트는 16일 두 회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일은 4월 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의견 청취 등을 거친다. 예정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고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9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양사 대표를 겸임한 이후 추진해왔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다.

통합 이마트는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협력업체들은 상품 판로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뿐더러 이마트와 협력사 모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여력도 커진다.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월부터 먹거리와 일상용품 등 필



한채양 이마트 대표. /이마트

수 상품을 분기마다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역주행’ 기획상품 일부를 함께 판매 중이다. 이마트의 시그니처 상품 중 하나인 ‘이맛쌀’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공급업체의 판로는 넓어지고 매장을 찾는 고객의 선택지 역시 커지는 ‘윈-윈’이 통합 이마트에서 한층 배가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교차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통합 마케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두 회사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물류 센터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편 양사 간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유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통합 이마트는 올해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 정비 등 기반을 다진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협력업체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두를 위한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이피알, 인기 캐릭터로 MZ소비자 공략

부스터프로 × 잔망루피 출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인기 캐릭터와 협업해 MZ소비자 공략에 적극 나선다.

에이피알은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에서 ‘부스터프로×잔망루피 핑크 에디션’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에이피알 대표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프로’에 잔망루피 특유의 귀여움을 더한 것이다. 에이피알은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한 기존 제품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한정판 포장 상자는 핑크색으로, 잔망루피가 부스터프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부스터프로’ 본체 또한 잔망루피 대표색인 핑크색이다.

이와 함께 ‘부스터프로’ 본체에 잔망



‘부스터프로×잔망루피 핑크 에디션’. /에이피알

루피 얼굴을 본뜬 헤드뚜껑이 적용됐다. 실리콘 재질로 제작한 잔망루피 헤드뚜껑은 외부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본체 헤드부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

에이피알은 향후에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소장 가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70% 할인전 ‘엘지력키페스타’

그룹 창립 77주년 기념 할인
화장품·생활용품·음료 등 행사

LG생활건강이 LG그룹 창립 77주년을 기념하고 차별적 고객 가치를 선보이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LG생활건강은 오는 21일까지 네이버쇼핑 내 LG생활건강 브랜드 스토어에서 ‘엘지력키페스타’를 진행한다

‘레드 위크’로 불렸던 이 행사는 올해 LG그룹 창립 77주년을 맞아 ‘엘지력키페스타’로 명칭을 변경했다. ‘력키’는 LG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호임과 동시에 행운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엘지력키페스타’를 통해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뷰티 브랜드로는 오뮴, 더페이스샵, 수려한, 비온드, 빌리프, 슌37° 등이 참



오는 21일까지 네이버쇼핑 내 LG생활건강 브랜드 스토어에서 ‘엘지력키페스타’를 경험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가한다.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의 경우 대표 제품에 1+1 혜택을 적용한다.

샴푸, 치약,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은 최대 66% 내린 가격으로 구성됐다. 특히 ‘닥터그루트’는 올해 신제품인 탈모증상집중케어 멀티퍼펙션 샴푸를 비롯해 스킨케어 등 최대 58% 할인한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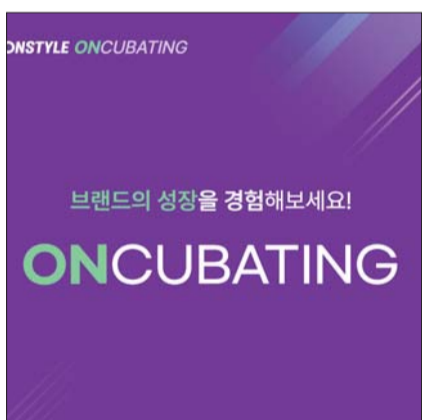
CJ온스타일, 신진 H&B 브랜드 발굴 판로 확대·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CJ온큐베이팅’ 3기 모집
최종 선발사 최대 4억 지원

CJ온스타일이 올해도 국내 신진 헬스앤뷰티 브랜드 발굴에 속력을 낸다.

CJ온스타일은 이달 30일까지 유망 H&B 브랜드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CJ온큐베이팅’의 3기 브랜드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CJ온큐베이팅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TV커머스, 유튜브 등 CJ온스타일의 멀티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는 물론, 브랜드 통합 마케팅, 제품 품질 개선 등 6개월간 브랜드 스케일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3기 CJ온큐베이팅은 지원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최종 선발 브랜드에 최대 4억원의 창업지원금 및 자본 투자 검토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CJ온큐베이팅. /CJ온스타일

된다.

전문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품 기획 및 생산,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펀딩 기회,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 연계 등 K-브랜드 고속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CJ온스타일만의 탄탄한 브랜드 육성 밸류 체인

을 구현한 것.

펀드를 통해 브랜드 밸류업을 위한 투자 기회도 제공한다. 브랜드 교육·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와디즈파트너스, 인포뱅크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CJ온큐베이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회사소개서 및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브랜드 성장성, 상품 경쟁력, 채널 적합성 등을 고려해 내달 4주차에 최종 선발사를 발표한다.

CJ온스타일은 ‘될성 부른’ 신생 브랜드를 찾아 지난해 4월부터 CJ온큐베이팅 운영을 시작했다. 성장 초기 단계의 브랜드를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정립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싱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조아제약 “지친 일상서 활력을 찾으세요”

‘조아 아르기닌 맥스’ 출시

조아제약이 활력 건강을 위한 제품을 선보인다. 조아제약은 마시는 고품질 아르기닌 ‘조아 아르기닌 맥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아 아르기닌 맥스’는 1앰플당 L

-아르기닌’ 성분을 6200mg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참굴 97미, 먹장어 42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준수산물성분표 기준, 참굴은 해당 성분을 20g당 64mg, 먹장어는 20g당 146mg 함유한다.

조아제약에 따르면 아르기닌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의 아미노산 중 하나다. 체내 합성량이 적어 외부로부터의 섭취가 권장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신제품은 블루베리 맛으로 맛과 향에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조아제약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아제약의 특허받은 용기 ‘조아 세피지 앰플’이 적용돼 휴대와 섭취도 간편하다.

/이청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현대백화점, 경기도 용인 일대 '탄소중립 숲' 조성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대한민국 청년 응원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15일 홈플러스, 대한적십자사와 '대한민국 청년응원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개최
교보생명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교보생명 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개최했다.



코웨이, 제2회 '물빛소리 합창단 런치 콘서트' 열어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에서 '제2회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런치 콘서트'를 진행했다.

IBK기업은행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 실시

IBK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대상 피해보장 보험 가입 무료 지원(1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법률·심리상담비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등으로 이뤄진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조주완 "임직원 'A·C·E' 원칙 통해 고성과 조직 달성"

(LG전자 사장) (목표의 명확함·실행의 신속함·과정의 완벽함)

LG전자 CEO F·U·N Talk

조 사장, 리더십 주제 소통 "회사, 구성원 함께 성장해야"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고성과 조직' 전환을 위해 임직원에게 'A.C.E'를 행동 원칙을 주문했다. A.C.E란 목표의 명확함(Aim for Clarity), 실행의 신속함(Conduct with Agility), 과정의 완벽함(Excellence in Process)을 뜻하는 영어 약자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조주완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CEO F·U·N Talk(편독)'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임직원들에게 '고성과 조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CEO F·U·N Talk는 조 CEO 취임 후 구성원과 소통



조주완 LG전자 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CEO F·U·N Talk'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LG전자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조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고성과 조직을 두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해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정의했다.

이어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열정 그리고 목표 설정과 남다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위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고 고객이 인정하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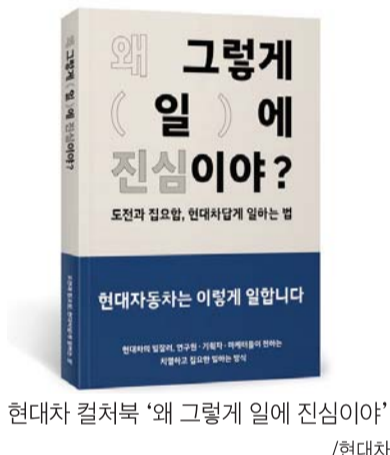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성과 조직 전환과 관련해 "모두가 동참하는 조직문화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는 각자 리더십을 발휘해 'A.C.E' 행동 원칙을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또 고성과 조직 전환을 위한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꼽으면서 3가지 동력인 '3P'도 강조했다. 3P는 ▲ 제품·서비스 관련 사업모델·방식(Product) ▲ 일하는 방식(Process) ▲ 구성원 역량(People) 등이다. 그는 "3가지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장기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 첫 컬처북 출간

도전·실력·긍정 3개 챕터 실제 경험 문답형식 구성

현대자동차는 임직원들 도전과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한 첫 번째 컬처북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를 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컬처북은 192쪽 분량으로 창업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현대차의 DNA인 도전·실력·긍정 3가지 챕터로 구성됐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컬처북에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임직원들의 실제 경험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연구원들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영상을 분석하며 충돌 안전 성능을 개선하는 이야기, 다양한 국가의 동료와 협업해 통합 서비스 견적 시스템을 개발한 이야기, 쓰레기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임직원 노력을 다룬 이야기 등이 담겼다.



현대차 컬처북 '왜 그렇게 일에 진심이야' /현대차

또 현업에서 근무하는 현대차 임직원들의 실제 경험을 문답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무 개 이야기에 담긴 '일하는 방식'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현대자동차의 기업문화이자 DNA"라며 "입사를 고민 중인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bhc치킨, 가맹점 건강검진 지원 확대

본인 외 1명 추가 지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가맹점 복지 혜택을 확대하며 ESG 경영을 이어간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전국 bhc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년 가맹점 건강검진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4월 3일까지 정상 운영한 bhc치킨 전 가맹점이며, 가맹점주 본인 1인에서 올해는 2인

로 확대된다.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1명에게 추가로 지원되며, 점주가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대표자 2인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일정은 2024년 4월 8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거점 지정병원에 예약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건강검진 비용은 본사가 전액 지원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성료

신진서 우승, 김명훈 준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2국에서 신진서 9단이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 9단은 지난 9일에 진행된 결승 1국에서 김명훈 9단을 상대로 174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으며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결승2국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명훈 9단을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우승자 신진서 9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0만원이, 준우승자 김명훈 9단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제25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2국에서 신진서 9단(오른쪽)이 김명훈 9단을 상대로 대국을 두고 있다.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국내 기전으로, 바둑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신원선 기자

중앙대 간호학과, 'QS 평가' 국내 1위

세계순위 51-100위권 진입

중앙대학교는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4 세계대학 학문분야평가(2024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에서 간호학과가 51-100위권에 진입하며, 국내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 QS 학문분야평가는 5개 학문분야, 55개 세부전공을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다. 학계 평판도와 기업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H-index, 국제연구 네트워크 등 5개 지표를 통해 대학별 순위를 매겼다. 올해 평가에는 총 1559개 대학이 참여했다. 중앙대 간호학과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순위 51-100위권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해 온 101-150위권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세계순위가 오르면서 국내 대학 기준 순위도 함께 올랐다. 51-100위권에 자리한 국내 대학은 총 3개교다. 중앙대와 서울대·연세대 간호학과가 함께 QS 기준 국내 공동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박상규 총장은 "간호학과가 최근 세계대학순위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연구성과 모두에서 좋은 성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현재 중앙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해 의학·약학·생명과학·생명공학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선도할 교육·연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학문단위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 ◆국가철도공단 >이사대우 △기획본부장 김공수 >본부장급 △GLOBAL본부장 윤학선 △GTX본부장 송혜춘
◆경희대학교 >교무위원 △지은림 학무부총장(서울) △김종복 대외부총장 △윤여준 교무처장(서울) △김성수 교무처장(국제) △홍인기 연구처장 겸 산

학협력단장

부음

▲이달호(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씨 별세, 이상운·세련·상원씨 부친상 = 15일 오후 4시, 칠곡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장지 고령군 다산면 선영. 053-200-2501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벚꽃이 늦게 핀다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마당의 벚꽃이 화들짝 피었다. 서울 여의도가 벚꽃이 비오듯 쏟아진게 일주일 전 쯤이다. 나는 벚꽃을 다른 이들보다 좀 오래 본다. 그 증거가 마당의 벚꽃이다. 사실 마당의 벚꽃은 집을 짓고 입구에 제일 먼저 심었던 토종 왕벚나무다. 유독 벚꽃에 약한 이유는 사십여년전 입대하던 날의 기억 때문이다.

그날 진해는 균형제 마지막을 즐기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꽃구경이란 걸 실감한 날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꽃이 피고 지는게 어느 식구처럼 너무도 사소했다.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러나 벚꽃만은 다르다. 훈련소에 들어간 후 며칠간 벚꽃이 지는 걸 진저리나게 볼 수 있어 더욱 그랬다. 바람이 불 때면 아예 꽃비가, 비가 오면 꽃물이 흘러가게 진해다. 그 광경이란 훈련소의 색다른 풍경이어서 이맘때 더욱 절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꽃은 하루 100여km쯤 북상한다는 걸 벚꽃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진해벚꽃이 만개한 지 3, 4일 후면 여의도에 벚꽃이 핀다. 올해는 4월초에 여의도 벚꽃이 개화했으므로 적어도 우리 동네도 같은 시기 벚꽃이 피어야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의도 벚꽃 질 무렵에야 우리 동네 벚꽃이 핀다. 아마도 기온 탓이리라. 벚꽃이란 식생은 지정학적 이치를 넘어서지 못했다고나 할까. 그걸 생각하면 좀 형언하기 어려운 기분이다.

그런데도 벚나무 한그루를 마당에 심던 때로부터 개화일은 일주일 가량 빨라졌다. 봄철이면 언제나 나는 벚꽃을 열흘 이상 즐기고 있다고 허풍쳐 왔던 것도 이제는 일주일쯤으로 줄었다. 여의도에 벚꽃 피고 3일 후쯤 여기서 벚꽃이 핀다. 우리 집 마당의 벚나무는 개량종과는 다른, 토종 왕벚나무라서인지 마을의 벚꽃이 질때쯤 피기 시작, 그제 바로 지금이다. 토종은 개량종이 질 때쯤 피어난다. 꽃잎은 희고 넓다. 토종의 위엄이랄까. 개량종들이 지고 나서야 은은한 자태를 피워내는 모습이 웬지 멋스럽게 느껴진다. 뒤이어 산수유며 매화꽃을 거느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여의도로 출근할 때는 열흘 이상 벚꽃 구경을 하곤 했다. 여의도 벚꽃을 보고, 그다음 곤지암의 벚꽃을 보고, 마지막으 우리 집 마당의 벚꽃을 보고 나면 온전히 봄을 만끽한거다.

그 꽃이 피고 지는 사이 세상도 개벽한 듯이 달라졌다. 요새 총선거가 끝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란게 실감난다. 어느 당의 우두머리는 목련이 필 때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거라는 말을 해서 이곳 사람들도 조금은 술렁였다. 여기도 서울과 인접한 도농복합지역인데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굳이 이곳이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를 내놓는다 해도 별 이슈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이가 없겠지만, 우리는 거론조차 될 수 없다는 감정은 숨길 수 없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그런 날엔 벚꽃은 피는 꽃과 지는 꽃의 의미를 되새겨주.

하여간 봄꽃조차 늦게 오는 동네, 시끄러울 법한 이슈에도 질 수 없다는게 좀 아프달까. 그리고 보면 여기는 다 늦다. 개발도 늦고 벚꽃 개화도 늦고, 물론 한탄은 아니다. 그저 그렇다는 말이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한동훈 위원장이 받은 '기대 이하' 성적표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이 새삼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실력이 검증된 '스타'의 정계 진출은 세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당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역시 선전하지 못하며 참패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민주당의 집중 유세장인 용산역 광장과, 국민의힘의 집중 유세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위해 나선 예비역 해병대원을 연사로 세워 분위

기를 띄웠다. 용산역 일대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푸른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청계광장도 비교적 많은 지지자와 직장인들이 모였지만, 20대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그 때보다는 한산했다. 정치현오와 막말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색다름'을 원했으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정치인은 민생을 다루는 직업이다. 정당의 최고위원회나 원내대책회의를 살펴보면 정쟁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민생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언급하지 않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론을 내세우기보다 고통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나 '민생' 정책을 연설의 주요 골자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싶다.

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며 후보와 지지자를 만나면서 바닥을 훑고 다녔다. 그는 유세차에 올라선 정쟁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보단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생을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호소했다.

시장 상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꿀팁'을 주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김 전 총리가 채운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본인 선거에 너무 바빠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김 전 총리의 유세를 보며 정치는 민생을 다루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 정치인으로서 매를 일찍 맞은 것이길 바라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만족했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했다. 48년생 부부연이 또 바뀔 것 같으니 양보. 60년생 저축청약이 성공된다. 72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연인으로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4년생 이상한 사람을 만나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 소** 37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49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라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61년생 숨겨왔던 숨씨를 마음껏 발휘. 73년생 행복한 가정 이발전의 원동력이다. 85년생 누구나 항상 현재에 살고 있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유의. 50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62년생 의료계에서 성공한다. 74년생 지위를 얻고 자비심으로 존경받음. 86년생 결과가 오후에 펼쳐지게 된다.
- 토끼** 3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51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6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75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 통함을 잘 선택. 87년생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 말** 40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다. 52년생 머리의 조언으로 고민이 해결. 64년생 되는 일이 없으니 서글프다. 76년생 1다음 2의 숫자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8년생 오늘 살아가는 길이 미래를 좌우한다.
- 뱀** 41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3년생 즐거운 소식을 전해오니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된다. 65년생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손해가 있다. 7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89년생 하늘에는 예측할 수 있는 비바람이 있다.
- 양** 42년생 자비심이 있어 존경받는다. 54년생 남편에게 내조는 잘하나 교양이 없다. 6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떨어지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7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90년생 소나기가 퍼붓다가 오후에 화창하게 갠다.
- 닭** 43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55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임을. 67년생 마음이 울적할수록 웃어야 복이 온다. 79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91년생 도리를 깨달아 노력.
- 원숭이** 44년생 자녀가 발전하나 이제는 욕심은 없다. 5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또 있다. 68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80년생 신망이 두텁고 결혼 운이 좋아 번창한다. 92년생 나무를 잘 기르면 근본적 뿌리가 튼튼해진다.
- 닭** 45년생 이제라도 문화센터 가서 예술방면 공부를 해보라. 57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81년생 뜻과 기개가 부모님의 가르침. 93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 개** 46년생 명문가 출신이며 사회에 공헌을 해왔다. 58년생 물려받은 유산은 없으나 늘 자신이 있다. 70년생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다 소외당할 수 있다. 82년생 사주가 관상만 못 하다 했는데. 94년생 제왕의 기운으로 공평하니 인간관계가 좋다.
- 돼지** 47년생 말년에 자녀에게 주는 돈은 운을 장담할 수가 없다. 59년생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왔다. 71년생 만사가 순조로운 하루이다. 83년생 패기가 있고 고집이 강하니 타인과 충돌을 피하도록. 95년생 흐린 하늘이 견히 밝은 운세가 펼쳐질 듯.

김상회의四季

여자의 순정



'여자의 순정' 일부종시를 미덕으로 여기던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와 관습 안에서는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던 여자의 덕목이기도 했다. 애정 문제는 알다지도 모를 알맞음이 많다. 첫눈에 반해 죽고 못 살 것처럼 극성을 떨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맹서는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던가. 그 사랑에 대한 순정은 왜 그리 여자에게만 더 강요되던가. 필자의 기억으로는 미국의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갯츠비'에서 보이는 갯츠비와 에밀리 부룬테의 소설인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드클리프의 사랑 정도나 남자의 순정으로 보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자가 남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행복하게 살았네요"로 끝나는 동화의 말미도 만약 그 이후의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분명 제2 제3의 후궁을 두지 말란 법이 없다. 애달픈 사랑을 한 숙종도 그랬다. 당태종을 이어받아 즉위한 당 고종 역시 선왕의 여자를 황비로 앉히지 않았던가. 그녀가 측근무후다. 가부장적 전통이 당연하던 오랜 세월 이전부터 사랑 문제에서도 남자들은 능력이 있을수록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자들에게는 부덕(婦德)을 강조하며 도식적인 삶을 정해 놓았다.

시앓을 보면 길가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애 마음을 둔다면 마음 양이가 보통이 아니다. 역학적으로 보자면 시앓을 보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사주에 비견(比肩): 자신의 일간과 같은 오행이 더 있게 되면 남편을 나누는 형국이 된다. 관성(官星)의 지지(地支)에 공방(空亡)이 들게 되면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롭게 독수공방을 한다. 남자들도 비견이 왕旺하면 아내 자리를 나타내는 재성이 약하면서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3	5	6	1	8
	5		1		2	9	
	2			6			
			7			5	6
	9						4
5	6		4				
			8				2
	4	9		5			7
7	8	5	1	2			4

8		4		9	1		6	2
7						5		
	5	8				4		1
5				6				
2			8		9			5
				4				8
1		9				3	8	
		7						9
3	6		9	2		1		4

7	1	8	2	6	9	9	8
6	9	2	8	1	9	2	8
9	8	2	9	7	6	2	1
8	1	6	9	7	8	2	9
9	7	9	6	1	8	8	1
2	8	8	7	9	2	1	6
1	2	7	9	8	2	8	6
8	6	9	2	8	1	9	7
2	9	2	1	6	9	7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순천향대·전남대·대전보건대 등 20개교 '글로벌대' 예비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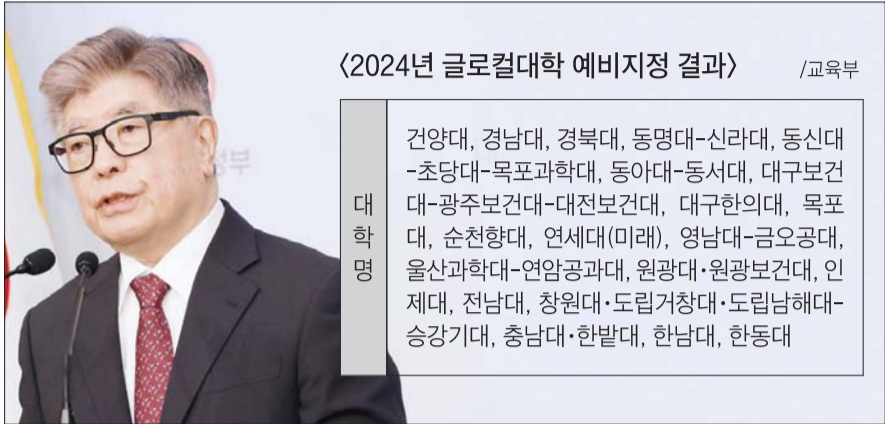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2024년 예비지정 평가 결과 발표 연합유형 신설, '초광역' 다수 선발 8월 말 최종 글로벌대 지정 계획

교육부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33개교의 20개 기획서가 예비 선정됐다. 지난해 예비지정을 통과했다가 본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순천향대와 전남대 등 5곳은 이번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다.

'글로벌(Global+Local, 글로벌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학교당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결과) /교육부
대학명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도림거창대·도림남해대·승강기대, 충남대·한밭대, 한남대, 한동대

과'를 발표했다.

◆ 109개교 65건 선정

올해 평가에서는 기존 단일 대학이 추진하는 '단독' 유형, 복수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유형 외에도 '연합' 유형이 신설됐다. '연합' 유형은 학사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본부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올해 사업에는 '단독' 유형 39개(39개

교), '통합' 유형 6개(14개교), '연합' 유형 20개(56개교) 등 총 109개교가 65개 기획서를 제출했다.

평가 결과 이중 단독 유형에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전남대 ▲한남대 ▲한동대 등 11곳이 선정됐다.

통합 유형에는 3곳이 본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충남대·한밭대 ▲원광대·

원광보건대와,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3개교 통합 및 한국승강기대와 연합을 구성하는 복합 유형까지 포함해 3곳이다.

신설된 연합 유형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등 6곳이다.

◆ 이주호 장관 "지역·대학 혁신엔진 뒷받침"

이번에 예비지정된 총 20개(33개교) 중 순천향대·연세대(미래)·인제대·전남대·한동대 등 5곳은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2024년에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해 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올해는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등 지난해 예비지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문대학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학은 대구·광주·대전 소재 보건 전문 대학들이 초광역 형태로 연합한 사례다. 초광역 연합 유형에서 선정된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는 물론, 원광대와 통합 유형에 선정된 원광보건대도 전문 대학의 선정 사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벌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벌대학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전문강사 마약 예방교육

약사·변호사 등 30명 구성

약사와 변호사,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서울 중·고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마약 및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했다.

전문 강사 30명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별 마약 예방교육 150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해외진출 스타트업 찾습니다"

서울시 미국 등 16개국 진출 지원 44억 투입... 내달 13일까지 모집

서울시는 올해 44억원을 들여 400여개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16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창업허브공덕을 통해 미국·베트남·인도·중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스타트업 43개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시는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4개국 5곳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거점'을 미국, 독일을 포함 7곳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이 진출하려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인공지능(AI)·바이오·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이 가속할 수 있도록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서울핀테크랩에서는 산업 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이지투어버스' 확대 운행

야간관광 등 체험형 요소 강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6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이지(EG)투어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지(EG)투어버스는 '경기도의 즐거운 탐험(Explore Gyeonggi-do Enjoy G-Shuttle)', '쉬운 경기도 여행(Easy Gyeonggi-Shuttle)'이라는 의미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 연계형 교통수단이다.

올해 이지(EG)투어버스는 총 7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과주노선은 DMZ 체험을 테마로 임진각, 평화공돌라, 캠프그리브스, 통일전망대를 경유한다. ▲수원/용인노선은 한류와 전통문화, 먹거리를 테마로 수원화성과 한국민속촌, 수원 남문시장을 경유한다. ▲포천

노선은 야간/체험형을 테마로 포천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등을 경유한다. ▲부천/김포(파주) 노선은 DMZ와 전통문화, 먹거리를 주제로 김포애기봉, 부천한옥마을, 부천만화박물관, 부천자유시장을 경유한다. ▲이천/용인 노선은 야간/먹거리를 주제로 이진상회, 이천도자기마을, 한국민속촌 등을 경유한다. ▲양평 노선은 먹거리/체험형으로 두물머리, 양수리전통시장, 수미마을 등을 경유한다. ▲가평 노선은 힐링을 주제로 아침고요수목원, 삿피프랑스, 이탈리아마을 등을 경유한다.

도는 기존 인기 노선 외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야간관광과 먹거리, 체험형 요소를 강화했다. 비정기 노선은 지역축제 등 시즌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교육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오는 2026년 서울 용산구에 대학생이 월 1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거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기숙사로, 여러 대학 학생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시행

내일부터 신청 접수... 시력검사 등 지원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의 시력검사와 안경 구입 비용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프로젝트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인원 제한 없이

서울시에 사는 초등학교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시는 휴대전화 문자로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전송한다. 쿠폰은 내달 3일에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6개월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4 | 해질 / 19:09

4월 17일 (수) / 음력: 3월 9일

수도권 날씨: 10~23°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7/23, 동두천 8/24, 가평 7/24, 파주 6/23, 서울 10/23, 양평 9/24, 인천 10/19, 수원 10/21, 용인 10/21, 평택 8/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정부 "北 생물학무기 위협 억제 위해 국제사회 긴밀 공조"
▲ 시진핑, 솔츠와 회담... "변혁 속에 양국 협력 필요" /사진 뉴시스



▲ 日증시, 미·일 장기금리 상승 영향에 급락...닛케이지수 1.94% ↓
▲ 日도쿄전력, '동일본 대지진' 운전 중단 원전 재가동 준비 /사진 뉴시스

▲ "美, 이스라엘의 이란 직접 타격 낮춰봐...대리 세력 공격할 듯"
▲ 올해 하계 다보스포럼, 6월 말 中 다롄서 개최



유통업계
냉장냉동식품
관리 강화
니



Life

‘통합이마트’
출범
시너지 극대화
L2



♥ 되살아나는 서울

15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광화문 경복궁을 지나다보면 탑처럼 생긴 좁고 뾰족한 건물을 볼 수 있다. 층고가 낮은 전각과 정전들 사이에서 나홀로 위로 높게 솟은 이 건축물의 정체는 ‘국립민속박물관 본관’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연구·전시하고 교육·보존하는 공간으로, 지난 1946년 남산 시정기념관에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개칭과 이전을 거친 국립민속박물관은 1993년 현 건물로 터를 옮겨 개관했다.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건물은 1966년 ‘국립종합박물관 설계경기’ 공모 특선 당선작이다. 1972년부터 1986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고, 1993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옮겨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다. 국립민속박물관 본관은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 화엄사를 본떠 디자인 했다.

/김현정 기자

조선시대 편지에 7080 레트로까지... 한국인 생활상 엿보다

◆한국인의 생활문화 한 눈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경복궁 방향으로 15분을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하늘 위에서 보면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다. 병 주둥이 부분에 돌탑과 장승, 효자각이 있다. 그 아래에 전통문화배움터, 연지방아, 물레방아, 오촌댁, 제수함이 위치했다. 병의 바닥부분에는 7080 추억의 거리, 놀이마당, 어린이박물관, 본관, 앞마당, 십이지신상이 들어서 있다.

가장 먼저 이색적인 풍광을 뽐내는 본관으로 향했다. 본관 정면 계단은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를, 건물 중앙은 법주사 팔상전을, 오른쪽은 금산사 미륵전을, 왼쪽은 화엄사 각황전을 본떠 디자인해서 그런지 건축물 외관이 묘하게 조립식 로봇 같은 인상을 풍겼다.

본관에는 한국인의 오늘, 일 년, 일생을 다룬 3개의 상설전시관과 2개의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한국인의 오늘’ 전시관에는 ‘살모 있는’, ‘자연스러운’, ‘함께 하는’을 주제로 한 것들이 전시됐다. 쓸모 있는 물건들로는 지게와 호미, 자연스러운 것들로는 달항아리, 원반과 찻잔, 함께 하는 일들로는 한강 둔치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등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인의 일 년’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한국인의 1년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로,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풀이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됐다. 유행선처럼 생긴 모형 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짚으로 만들어진 배 위에는 사과 등의

한국인 생활문화 연구·전시 보존 공간 시간·계절 따라 흘러가는 삶의 모습 전시 조선시대서 현대까지 겪은 주요 과정 그려 야외 전시장 ‘7080 추억의 거리’ 볼거리



관광객들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야외전시장에 세워진 문인석.



야외전시장 내 ‘7080 추억의 거리’.

과일이 올려져 있었다. 돛과 배의 앞뒤를 연결한 실에는 흰색 천으로 만든 꼬마 귀신 인형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기괴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의례용 배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섬사람들은 해녀와 어민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영등굿의 마지막에 제물을 실은 배를 바다로 띄워 보

냈다. ‘배방선’이 마을의 나쁜 기운을 먼 곳으로 가져간다고 여겼다.

‘한국인의 일생’ 전시관에는 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 한국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게되는 주요 과정이 그려졌다. 수많은 전시물 중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쓴 편지가 가장 재밌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위해 시아버지 이중하가 며느리 동래 정씨에게 보낸 서간에는 “순산 후에 국밥은 잘 먹고 있으며, 아이도 장수하게 생겼느냐? 섭섭해하지 마라. 어찌 번번이 아들을 낳겠느냐?”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이 적혀 있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아들 둘을 낳으면 ‘목메달’, 딸·아들은 ‘은메달’, 딸 둘은 ‘금메달’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아 선호 사상이 강해진 것이 흥미로웠다.

◆옛 마을, 근·현대 거리 되살린 야외전시장

본관 실내 전시를 둘러본 후 야외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970~1980년대 거리를 재현한 ‘7080 추억의 거리’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LP판으로 벽을 장식한 뮤직박스가 있는 찻집 ‘약속다방’, 친구·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바로 출력해 가져갈 수 있는 체험형 사진관 ‘서울시장’ 등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파스텔톤의 고운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문과 형상의 무덤을 지키는 석물 ‘문인석’과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동네 입구에 세워놓는 장승 등이 잔뜩 세워진 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외전시장에는 경북 영덕군 영하면 원구리에 있던 낚시 집안의 가옥 ‘오촌댁’, 통일신라 성덕왕릉 호석의 십이지를 본따 만든 ‘12지신상’ 등이 전시돼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3~10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문을 연다.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과 설, 추석에는 휴관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커리·제임스·듀랜트 등 최고 농구선수들 파리 올림픽 출전 /사진 뉴시스
▲이소영·김연경, 부상으로 여자배구 대표팀 낙마...문지윤 등 선발

▲외국선수들 중선수에 먼저 가라는 듯 손짓...중마라톤 승부 조작?
▲튀르키예 프로축구 뛰는 황의조, 2경기 연속 교체 출전



▲오타니 계약서 부정송금 통역, MLB 영구추방 가능성 제기
▲FA 영입 선수 모두 2군행...롯데, 분위기 쇠신 가능할까 /사진 뉴시스